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석하 KDI거시금융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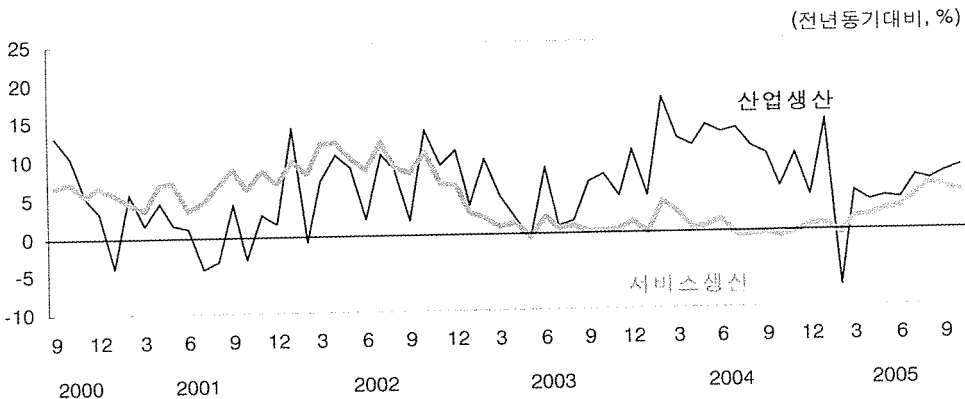
1. 전반적인 경기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모습이다. 다소 저조한 투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소비의 회복이 비내구재 및 서비스로 파급되는 등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내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3/4분기에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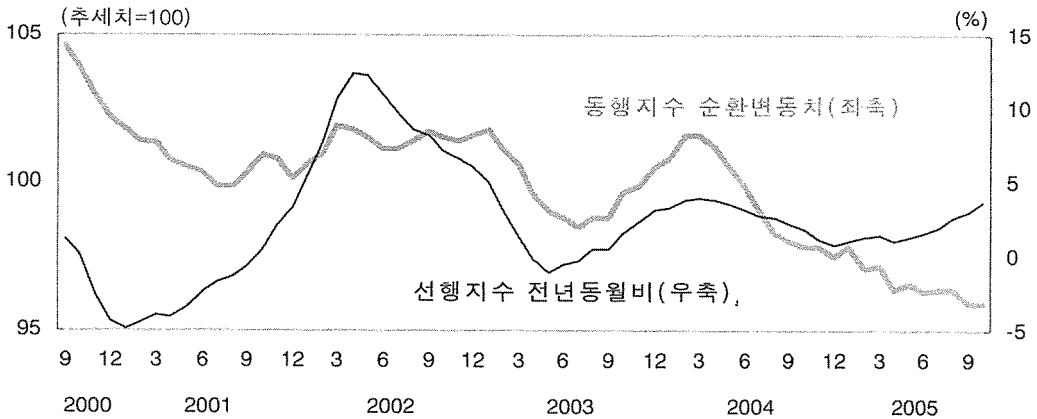
등한 수출증가율이 최근에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기업 및 소비자의 기대심리도 경기회복세의 지속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산업생산은 10월중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여 금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1.0% 증가하는 등 금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완만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자제품재고의

산업생산 및 서비스 생산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고 있어 생산-재고순환의 측면에서도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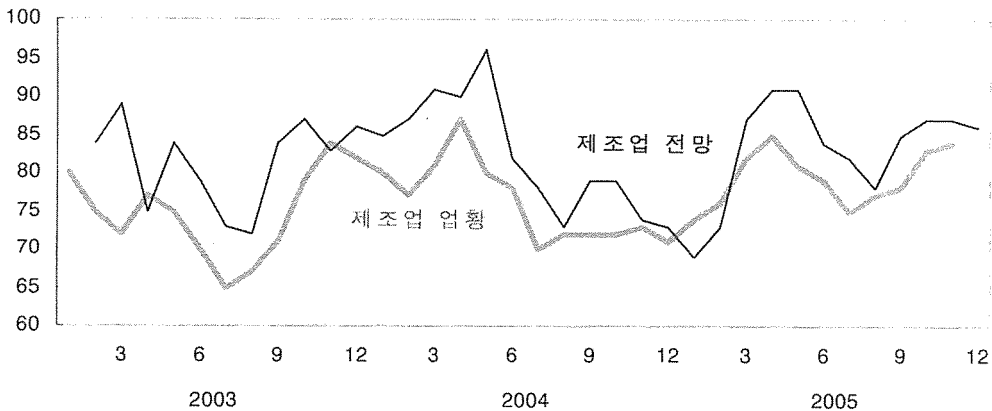
10월중 서비스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 4.7%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전분기 대비 0.3%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10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선행지수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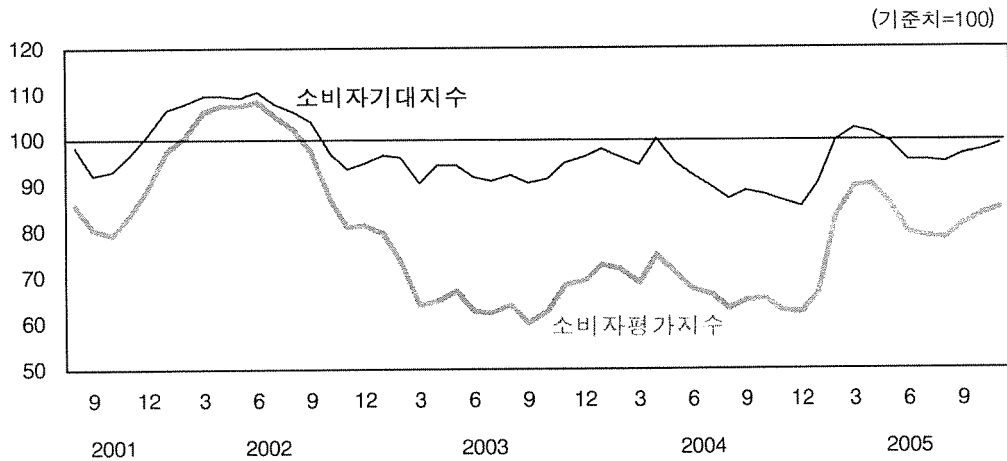
동월비는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95.9를 기록하였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건축허가면적, 종합주가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p 높은 3.7%를 기록하였다.

11월중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확산과 수출호조 지속 전망 등에 기인하여 개선되는 모습이다. 11월중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황 BSI는 84를 기록하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은행)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 (한국은행)



여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전경련 BSI는 계절조정기준으로 전월(93.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101.0을 기록하여 대기업의 체감경기가 호전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11월중 소비자 평가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가 각각 84.9와 98.5를 기록하여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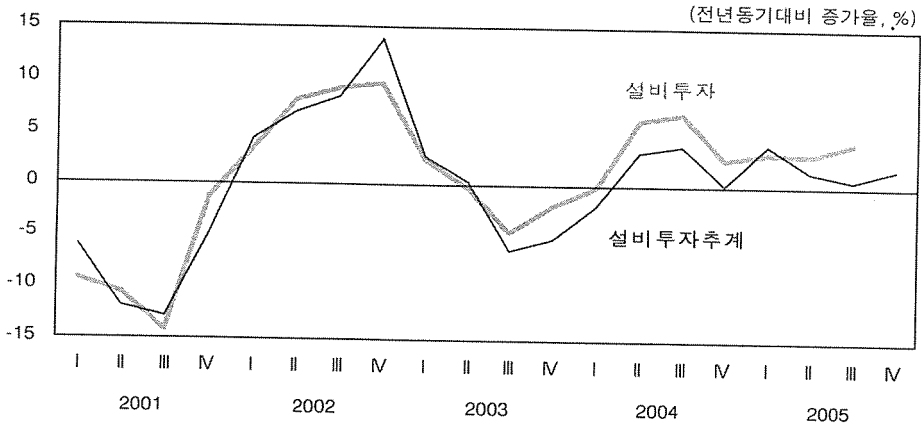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소비 관련지표들은 10월중 상승세를 유지하여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소비재판매액지수는 10월중 전년동월대비 3.4%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는 0.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내구재 판매는 9월의 자동차부문 파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지수 변화추이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추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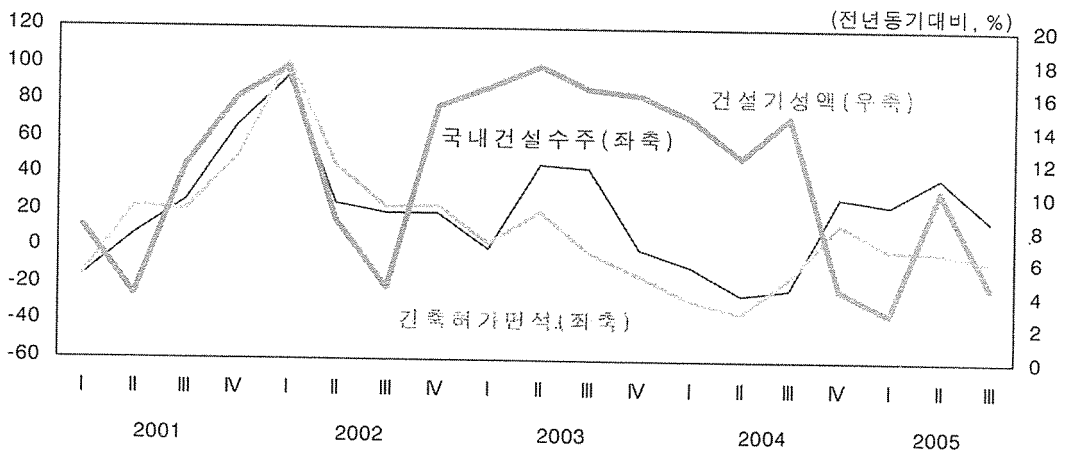


업에 따른 판매차질이 해소되면서 다시 회복세에 복귀하고 있으며, 비내구재 판매의 증가세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월중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추계는 전기전자기기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분기(0.5%)에 비해 소폭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1.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금

년 7월 이후 호조세를 지속하던 기계류 내수 출하가 통신기기 및 기계장비 등의 출하부진으로 3.0% 감소하는 한편 내수용자본재수입액도 증가세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다.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10월중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하여 전분기(13.6%)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에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낮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액의 추이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비중 ¹⁾	2004				2005				
		연간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건설투자	1.00	1.1	3.6	1.3	-3.4	-2.9	1.7	0.4	-	-
(계절조정)	-	-	(-0.4)	(-0.7)	(-1.0)	(-0.8)	(4.4)	(-2.0)	-	-
건물건설	0.61	2.0	4.6	1.1	-3.7	-6.2	1.8	0.4	-	-
토목건설	0.39	-0.1	2.1	1.7	-3.0	4.0	1.6	0.5	-	-
디플레이터	-	6.4	6.4	6.6	6.9	5.1	3.6	3.3	-	-
건설기성액 ²⁾	1.00	11.0	12.3	14.8	4.4	2.8	10.3	4.4	3.3	3.4
공공부문	0.33	5.3	9.3	8.7	-5.3	-0.8	3.5	-6.0	-6.9	-3.1
민간부문	0.64	14.4	14.1	18.3	9.8	4.4	13.9	9.3	8.7	5.9
국내건설수주	1.00	-5.3	-23.8	-20.8	28.8	24.8	40.5	16.7	28.5	-34.8
공공부문	0.29	13.0	-29.3	-7.8	43.2	22.8	75.4	-0.1	-1.9	-58.7
민간부문	0.66	-13.5	-22.2	-28.7	16.9	21.4	33.0	30.7	55.0	-15.7
건축허가면적	1.00	-17.3	-34.0	-15.0	14.7	0.2	-1.0	-6.0	8.3	13.9
주거용	0.43	-19.4	-42.1	-22.0	31.4	27.6	8.6	0.9	25.2	-15.0
상업용	0.26	-32.4	-34.9	-31.9	-31.6	-30.8	-29.1	-15.6	-20.0	44.1
공업용	0.13	0.0	-22.6	29.8	17.4	-18.1	16.3	-21.5	15.2	45.3

주: 1) 비중은 2004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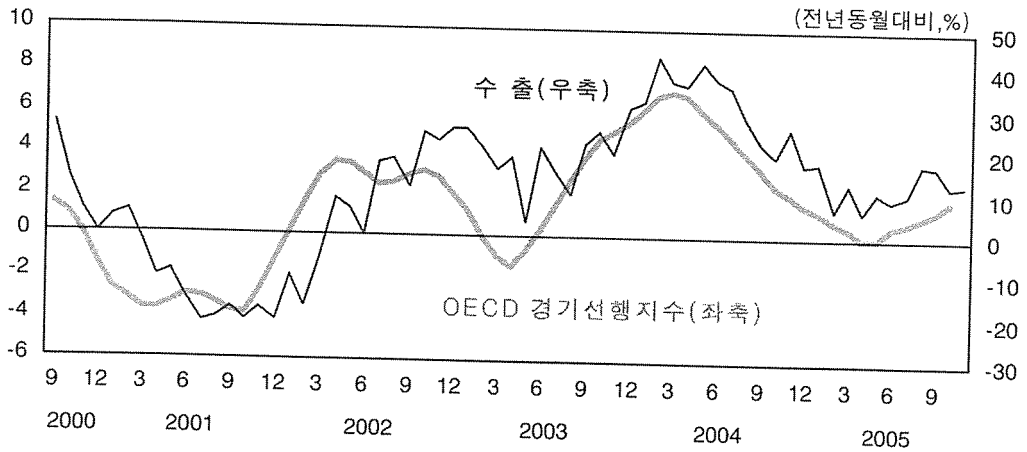
건설투자의 경우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10월중(명목)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여 2/4분기(10.3%)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증가율도 10월중 공공 및 민간부문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4.8%를 기록하였다. 다만, 건축허가면적은 주거용(-15.0%)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업용(44.1%)과 공업용(45.3%)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3.9% 증가하였다.

수출은 11월중 IT품목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자동차,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에

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3.0%의 호조세를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중국 및 EU로의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우리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는 증가세를 지속하여 수출증가세가 향후 다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0월중 실업률이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한 가운데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수 증가율도 전월과 비슷한 1.2%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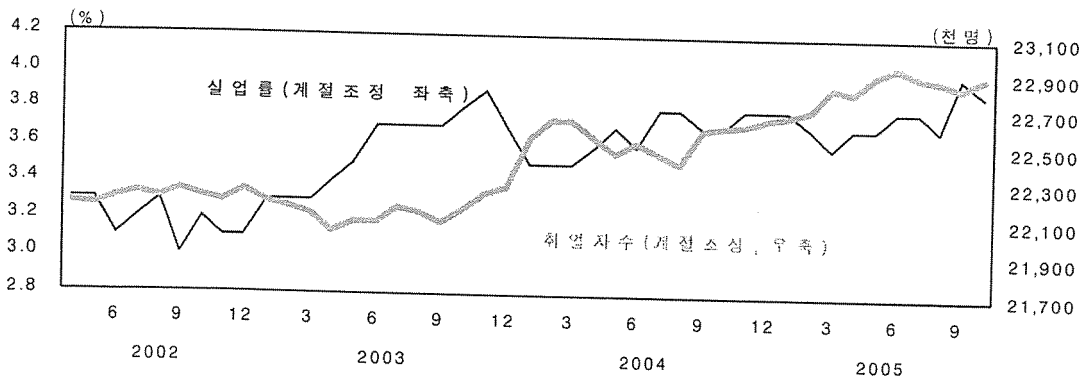
3/4분기 중 명목임금상승률은 특별급여 증가세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2/4분기(7.4%)에 비해 낮은 5.6%를 기록하였다.

11월중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월대비 0.7% 하락하여 10월(-0.2%)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공업제품도 석유류가격이 하락세를 보

임에 따라 -0.3%의 하락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원물가(곡물이외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도 -0.1%의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과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서울 강남 일부지역은 소폭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며,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절적 비수기로 인해 11월중 전월대비 0.4%로 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III. 대내외 경제여건

미국경제는 설비투자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건설지출이 아직까지는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도 허리케인 및 유가 불안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모습이다. 2006년 상반기까지는 태풍피해 복구로 인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민간 소비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성장률은 2005년(3%대 중반)을 소폭 하회하는 3%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소비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엔화약세에 따라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구조조정의 결과 기업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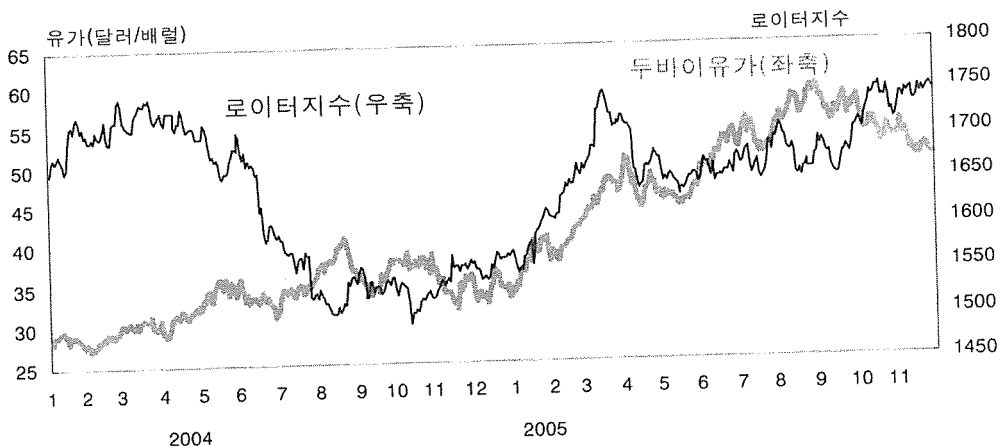
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006년에도 2005년에 이어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경제의 경우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유로화 약세 및 산유국의 구매력 증가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2006년에는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2005년 성장률(1%대 초반)을 다소 상회하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소비의 견실한 증가세와 더불어 투자와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중국정부의 경기안정 정책 지속으로 인해 2005년(9%대 중반)을 하회하는 8%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원유생산 증대, 허리케인 피해 복구, 석유재고 증가 등에 기인하여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여 11월에는 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럴당 52달러(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하였다. 원유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산유국들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편 반도체(DDR 256MB 기준) 현물가격은 수요부진과 생산업체들의 재고물량 방출로 인해 11월말 현재 개당 2.0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주요 반도체 전망기관들은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2006년에 반도체 부문의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력품목이 플래시메모리로 옮겨가는 추세이므로 디램 가격이 크게 높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중 달러화가치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금리격차 및 상대적으로 견실한 미국경제의 성장세로 강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0월중 외국인 주식 순매도로 인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1월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완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IV. 향후 전망

우리경제는 2006년에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면서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면서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4%대 후반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하반기 성장률 격차는 상당부분 전년 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연중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소득증가 및 고용여건 개선에 따라 회복기조를 유지하여 2006년에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소비와 서비스부문의 지속적인 회복에 따라 2006년에는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어 7%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2006년에 BTL 및 기업도시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1%대 초반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수출(물량)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기인하여 2005년보다 높은 1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상품수입(물량)도 내수회복에 기인하여 2005년보다 크게 상승한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경기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 3.6%를 기록하여 2005년(3.8%)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시차를 두고 경기상황에 반응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06년 하반기 실업률이 상반기(3.8%)보다 하락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환율효과가 소멸되는 한편 내수회복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2005년(2.7%)보다 높은 3.0%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내수회복으로 인해 상품수입(금액) 증가세가 상품수출(금액)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2005년에 비해 30억 달러 내외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 적자도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에 비해 상당 폭 감소한 120~13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5~06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5				2006		
	상반 ^p	3/4 ^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3.0	4.5	4.9	3.9	5.4	4.7	5.0
총소비	2.4	4.1	4.3	3.3	4.4	4.0	4.2
민간소비	2.1	4.0	4.4	3.1	4.5	4.0	4.2
총고정투자	1.2	2.0	2.6	1.8	2.8	4.0	3.4
설비투자	3.0	4.2	5.9	4.1	6.2	7.5	6.9
건설투자	-0.2	0.4	0.5	0.2	0.4	1.7	1.1
총수출(물량)	6.4	11.5	11.0	8.9	13.2	11.9	12.5
상품수출	7.3	13.3	12.2	10.1	13.9	12.6	13.2
총수입(물량)	5.4	10.7	7.9	7.3	12.3	12.1	12.2
상품수입	3.4	10.3	6.9	6.0	12.8	12.9	12.9
경상수지	87	25	56	168	57	67	124
상품수지	179	76	94	349	157	162	319
수출(금액)	1,388	723	782	2,894	1,572	1,695	3,267
(증가율)	(11.1)	(14.4)	(12.4)	(12.3)	(13.3)	(12.5)	(12.9)
수입(금액)	1,209	648	689	2,545	1,415	1,533	2,948
(증가율)	(14.2)	(21.4)	(14.0)	(15.9)	(17.1)	(14.7)	(15.8)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92	-50	-38	-181	-100	-95	-195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1 (2.8)	2.3 (1.9)	2.5 (1.9)	2.7 (2.3)	2.6 (2.3)	3.3 (3.1)	3.0 (2.7)
실업률 (계절조정)	4.0 (3.7)	3.6 (3.8)	3.5 (3.7)	3.8	3.8 (3.6)	3.3 (3.5)	3.6

주: 1) p는 잠정실적지(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